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과 과제

박미성 | 김성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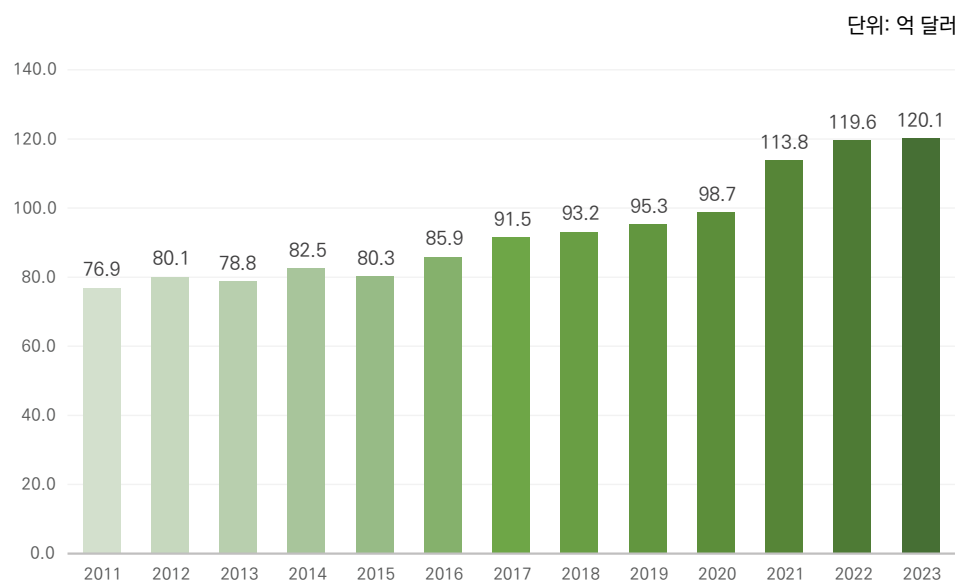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4년 제8호에서는 한국의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과 농식품 수출정책 동향,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식품 시장 트렌드를 정리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시함.
- 분석 결과, 1)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K-Food의 지속적 인기로 농림수산물 수출액 12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특히 가공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7.5%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함. 2) 2024년 상반기 기준, 아세안과 미국, EU(영국 포함)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다소 감소함. 3)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K-푸드 플러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반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62억 1,190만 달러를 달성함. 4)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산업 트렌드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행태로의 전환, 건강·웰니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저염·저당식품의 소비 증가 등임.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6)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로 기존 제품의 기술개발 및 적용을 통한 수출품목 발굴, 복합문화와 함께 수출패키지 전략 마련, 각국의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대비, 식품기업의 ESG 경영 등을 제시함.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의 공식 제공 통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보도자료 등 일부 발표 자료와 수치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011~2015년 80억 달러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연평균 5.2%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분절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농림수산물 수출액 120억 달러를 돌파함.
 - 전 세계적인 한류 문화 및 K-콘텐츠 확산으로 K-Food의 인기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국 확대로 수출 호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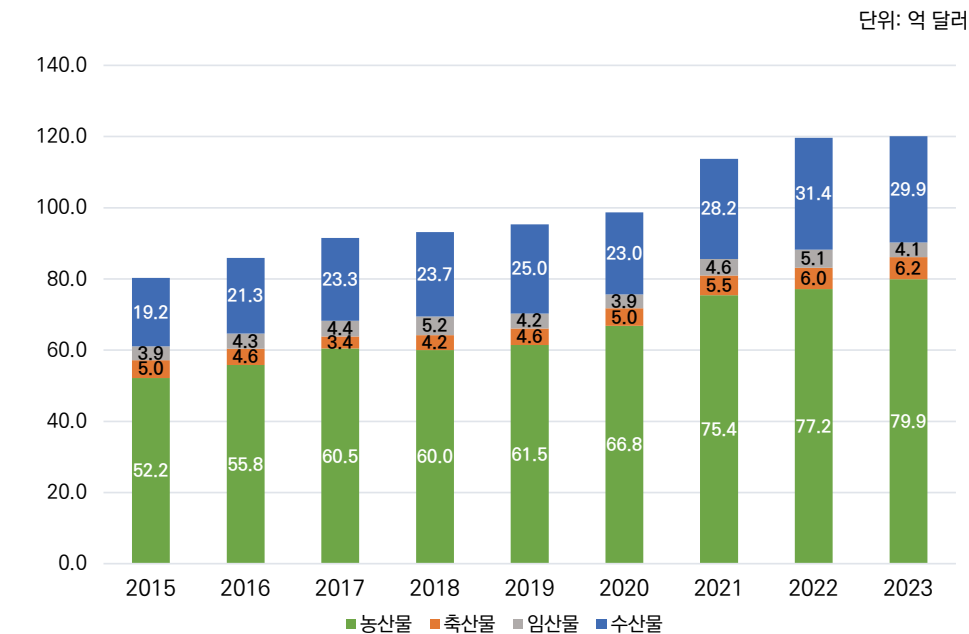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수출금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농림수산물 부문별 수출비중은 2023년 기준 농산물 및 그 가공품(66.6%) > 수산물 및 그 가공품(24.9%) > 축산물 및 그 가공품(5.2%) > 임산물 및 가공품(3.4%) 순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비중이 가장 높음.
 - 농산물의 경우, 라면 등 가공식품과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체 농산물 수출금액 증가를 견인함.
 - 2015~2023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수산물(연평균 5.7%), 농산물(5.5%), 축산물(2.8%), 임산물(0.6%) 순으로 나타남. 수산물 수출 약진은 김의 해외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간식용 김(부각, 스낵, 칩 등)의 품목 다변화 전략을 통해 수산물의 수출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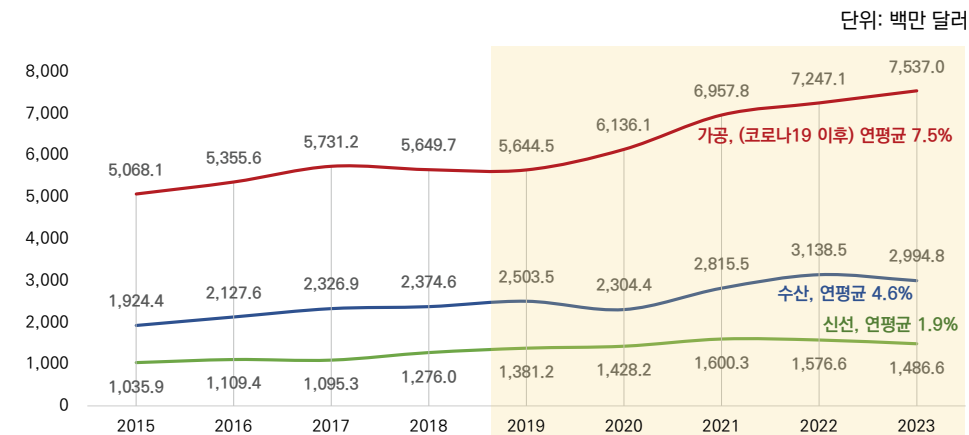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부문별 수출금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농림수산물 유형별(농림축산 신선·가공, 수산) 수출 추이는 모두 증가 추세이며, 특히 가공부문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연평균 7.5%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2023년 기준 가공 부문 수출액은 75억 달러(전체의 62.7% 비중), 수산 부문은 약 30억 달러(24.9%), 신선 부문은 약 15억 달러(1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농림축산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은 2019년 59.2%에서 2023년 62.7%로 비중이 확대되었음.

농림수산물 유형별 수출금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2023년 신선식품과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대비 각각 5.7%, 4.6%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2년 대비 4.0% 증가하였음. 수출액 증가 폭이 큰 가공식품 품목은 면류(20.8%), 음료(11.5%), 연초류(8.2%), 소스류(6.0%), 과자류(5.6%) 등의 순서임.
- 면류(17.9%), 과자류(10.5%), 소스류(10.3%), 음료류(7.9%)는 최근 5년(2019~2023)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큰 품목이었음. 한편, 주류(-1.3%)와 낙농품(-0.9%)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감소하였음.
- 또한 신선 부문에서는 김치(10.3%), 수산 부문에서는 김이 포함된 해조류(7.1%)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Ⅱ 농림수산물식품 유형 및 분류별 수출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율	CAGR ('19~'23)
신선	1,381.2	1,428.2	1,600.3	1,576.6	1,486.6	-5.7%	1.9%
과실류	351.5	348.8	409.1	390.5	386.3	-1.1%	2.4%
채소류	324.2	317.5	326.0	293.8	293.2	-0.2%	-2.5%
인삼류	210.3	229.8	267.0	269.7	260.2	-3.5%	5.5%
김치	105.0	144.5	159.9	140.8	155.6	10.5%	10.3%
가금육류	65.0	76.1	67.6	103.0	91.5	-11.2%	8.9%
버섯류	54.4	49.0	45.1	38.3	35.6	-7.0%	-10.1%
곡류	51.9	53.1	52.4	52.7	64.3	22.0%	5.5%
화훼류	17.2	15.4	16.6	12.4	9.3	-25.0%	-14.2%
돼지고기	6.1	18.5	30.1	27.1	36.4	34.3%	56.3%
산림부산물	195.8	175.1	226.7	248.2	154.1	-37.9%	-5.8%
가공	5,644.5	6,136.1	6,957.8	7,247.1	7,537.0	4.0%	7.5%
연초류	929.4	1,005.2	887.3	931.5	1,008.2	8.2%	2.1%
면류	612.0	792.3	891.1	978.4	1,182.0	20.8%	17.9%
과자류	440.9	518.7	613.0	621.7	656.4	5.6%	10.5%
음료	422.0	410.4	485.1	513.3	572.4	11.5%	7.9%
주류	383.7	323.3	323.4	364.9	364.8	0.0%	-1.3%
소스류	255.9	318.8	360.7	357.2	378.7	6.0%	10.3%
낙농품	155.2	155.9	170.5	173.1	149.7	-13.5%	-0.9%
목재류	222.9	218.3	237.8	259.3	252.9	-2.5%	3.2%
기타(가공)	2,222.5	2,393.2	2,988.8	3,047.8	2,972.0	-2.5%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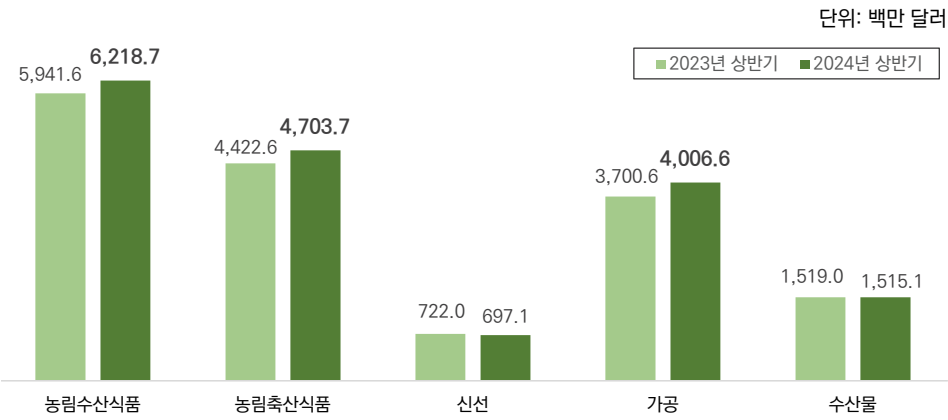
(계속)

수산	2,503.5	2,304.4	2,815.5	3,138.5	2,994.8	-4.6%	4.6%
어류	1,213.3	1,076.7	1,404.4	1,703.4	1,387.1	-18.6%	3.4%
해조류	661.3	677.1	768.3	721.3	870.6	20.7%	7.1%
연체동물	260.8	235.2	293.2	280.5	298.6	6.5%	3.4%
갑각류	209.1	174.2	162.4	234.1	240.0	2.5%	3.5%
기타	158.9	141.2	187.2	199.2	198.5	-0.4%	5.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2024년 상반기(1~6월) 기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62억 1,8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함.
- 그중 신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6억 9,710억 달러, 가공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0억 660만 달러, 수산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15억 1,510만 달러로 집계됨.
- 신선 부문은 수출 비중이 큰 채소류, 과실류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와 비교하여 소폭 부진하였으나, 가공 부문은 2023년에 이어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은 굴 및 주요 어류(고등어, 명태)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감소함.

Ⅲ 2024년 상반기 농림수산물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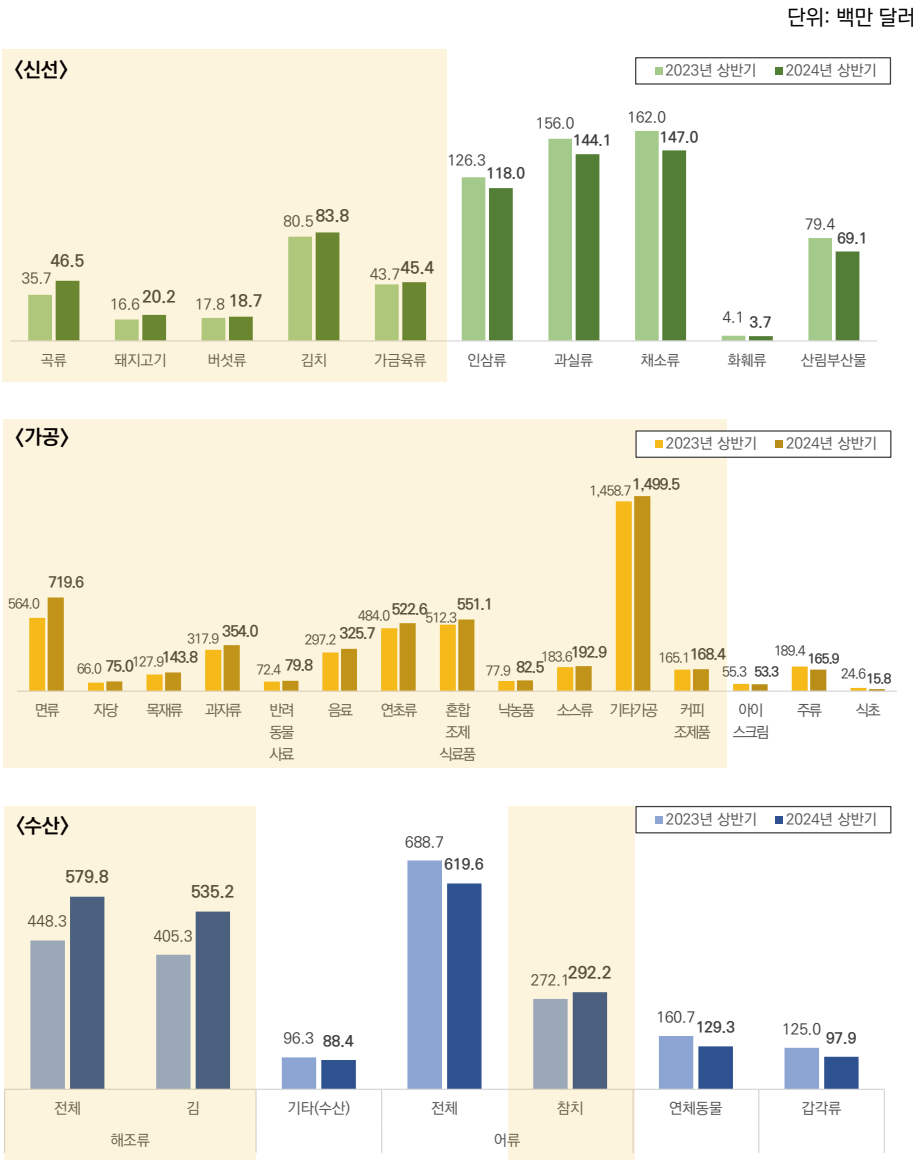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품목별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신선) 곡류, 돼지고기 / (가공) 면류, 자당 / (수산) 해조류, 김 등으로 집계됨.
- 신선 부문에서는 곡류가 4,6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하였고, 이어서 돼지고 기(2,020만 달러, 21.7%), 버섯류(1,870만 달러, 5.1%), 김치(8,380만 달러, 4.1%)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의 경우, K-PORK 수출 확대 추진단 출범 이후 신규시장 발굴, 검역협정 체결, 현 지 시장 상황에 대응한 지원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김치는 특히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발효·건조식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이 증가함.

- 가공 부문에서는 면류가 7억 1,9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고, 이어서 자 당(7,500만 달러, 12.0%), 목재류(1억 4,380만 달러, 11.1%), 과자류(3억 5,400만 달 러, 10.2%) 등의 순이었음.
- 면류의 수출 약진은 라면의 인기 확산에 따른 결과로, SNS를 통한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 면 챌린지의 인기와 더불어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며 수출이 가 속화되었기 때문임. 기타(가공)의 경우 냉동김밥, 막걸리 등을 비롯한 쌀가공식품 수출 급증 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수산 부문에서는 김을 포함한 해조류가 5억 7,9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한 반면, 이외 품목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어류가 6억 1,96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치 수출액은 2억 9,220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7.4% 증가함.

Ⅳ 전년 동기 대비 농림수산물식품 부류별 수출금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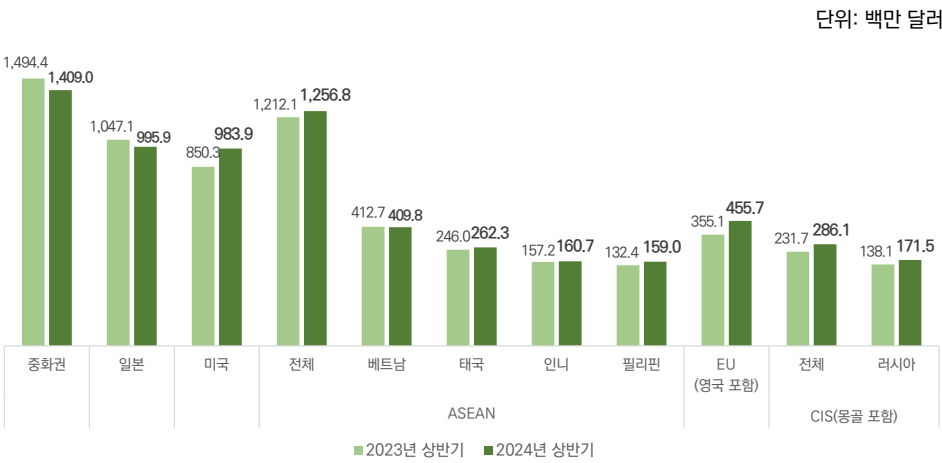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주요 품목의 국가별 수출 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 대상국 중 아세안(12억 5,680만 달러), 미국(9억 8,390만 달러), CIS·몽골(2억 8,610만 달러), EU·영국(4억 5,570만 달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함.
 - 미국의 경우, 고물가 지속으로 가정 내 직접 요리하는 트렌드가 강세를 보였고, 현지 유통 매장 내 농식품(기타소스, 라면)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증가함. 아세안의 경우 현지화지원사업, one-stop 시험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기존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임.
 - 몽골을 포함한 CIS(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주력국의 환율 안정화 및 한국 농식품 현지 유통체인 입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한식당 신규 개소 등 B2B 사업과 한국 식품(장류, 김치, 김, 어묵 등) 소비자 인지도 확대로 인한 B2C 거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증가함.
 - 반면, 일본은 엔저 현상 지속으로 농수산식품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과 함께 내수 소비 위축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함. 중국의 경우 조제분유, 라면 등을 비롯한 농식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나, 수산식품의 역기지 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함.

2024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국가별 수출실적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라면/과자류/음료류/소스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으로 확인됨.
 - 라면/과자류/음료류/소스류 등의 경우 중국과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급부상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라면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기준, 라면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3%로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으로 집계됨. 이어서 과자류(11.4%), 음료류(9.6%), 소스류(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4년 상반기 라면/과자류/음료류/소스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A)	2024년 상반기 (B)	증감률 (B/A)
라면	603.6	674.4	765.4	952.4	446.0	590.2	32.3%
중국	149.1	149.9	188.9	215.4	87.4	113.8	30.2%
미국	82.3	81.2	76.2	126.6	63.2	100.1	58.4%
네덜란드	11.5	19.3	30.0	60.7	28.1	45.6	62.3%
일본	54.5	65.3	60.6	58.0	31.4	31.5	0.3%
영국	17.7	19.1	24.6	37.6	16.6	25.9	56.0%
과자류	518.7	613.0	621.7	656.3	317.9	354.0	11.4%
미국	131.0	150.2	158.6	211.8	93.9	126.6	34.8%
중국	83.7	119.0	101.3	111.5	63.0	48.2	-23.5%
일본	90.1	95.6	115.4	72.2	37.5	36.7	-2.1%
호주	25.7	30.4	29.8	33.2	15.7	16.8	7.0%
캐나다	13.5	13.9	15.2	25.8	11.2	16.5	47.3%
음료류	410.4	485.1	513.3	572.3	297.2	325.7	9.6%
중국	62.4	91.2	87.1	121.5	65.9	72.2	9.6%
미국	79.0	78.0	82.6	83.3	44.3	45.8	3.4%
베트남	34.0	37.0	55.0	53.8	29.0	32.7	12.8%
캄보디아	73.5	72.8	74.1	53.9	29.3	32.2	9.9%
인도네시아	10.9	18.5	18.4	22.6	11.0	12.8	16.4%
소스류	318.8	360.7	357.2	378.5	183.6	192.9	5.1%
미국	73.5	81.3	79.2	83.7	41.4	44.8	8.2%
중국	62.5	58.5	44.1	49.8	23.0	24.1	4.8%
일본	25.0	32.3	38.3	34.6	18.5	17.4	-5.9%
러시아	27.2	34.1	32.4	29.6	13.8	13.8	0.0%
베트남	12.6	13.8	15.9	18.1	8.0	9.8	22.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전통식품(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기타장)은 모든 품목에서 2023년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대체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음.
 - 대표 K-Food인 김치 수출액은 2024년 상반기 기준 8,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임. 그러나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은 점차 감소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임.
 - 간장 수출액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된장은 캐나다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함.

- 고추장은 유럽(네덜란드, 영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음. 청국장을 포함하는 기타장의 경우, 최근 필리핀 시장을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함.

2024년 상반기 전통식품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김치) 백만 달러 / (장류) 십만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A)	2024년 상반기 (B)	증감률 (B/A)
김치	144.5	159.9	140.8	155.6	80.5	83.8	4.1%
일본	71.1	80.1	61.0	61.5	33.8	28.3	-16.3%
미국	23.1	28.3	29.1	40.0	20.2	24.1	19.3%
네덜란드	5.1	5.4	6.4	7.4	4.1	5.6	36.6%
영국	3.8	5.5	5.3	6.2	2.6	4.2	61.5%
캐나다	3.3	3.0	3.7	5.5	2.7	3.8	40.7%
간장	160.7	186.0	172.8	179.1	86.4	95.1	10.1%
미국	34.9	35.7	33.5	40.6	20.1	21.7	7.9%
러시아	22.0	26.2	25.2	20.0	10.7	13.0	21.7%
캐나다	15.5	13.9	13.6	14.9	5.9	8.1	37.4%
베트남	8.2	7.8	11.3	10.9	5.2	6.4	22.1%
독일	7.2	18.1	6.3	9.9	4.6	5.3	15.6%
된장	117.2	109.7	106.3	112.3	56.8	54.8	-3.5%
미국	39.1	39.7	38.8	49.9	24.6	22.9	-6.9%
필리핀	7.6	6.0	9.4	6.9	3.1	4.3	39.2%
캐나다	5.7	4.8	6.1	7.0	3.4	4.2	23.8%
중국	22.1	19.1	13.7	8.6	5.2	3.8	-27.2%
호주	4.7	4.6	4.1	4.2	1.8	2.5	37.9%
고추장	509.3	528.0	525.7	619.2	305.4	312.5	2.3%
미국	134.8	140.7	155.8	211.0	99.5	96.3	-3.3%
일본	52.7	59.5	58.7	57.5	30.5	30.1	-1.3%
중국	88.0	74.0	64.9	44.5	25.8	22.4	-12.9%
네덜란드	10.9	14.7	14.1	26.6	13.3	19.3	45.4%
영국	14.3	16.9	16.7	24.8	6.2	16.5	165.6%
기타장	177.2	171.4	139.6	158.7	67.3	66.7	-0.9%
미국	36.4	43.0	29.4	41.1	20.0	17.2	-14.1%
필리핀	27.6	21.6	20.3	26.1	8.3	12.6	51.9%
중국	41.3	36.1	28.3	25.5	13.2	7.0	-46.7%
베트남	7.0	6.6	8.3	7.9	3.0	3.7	24.9%
대만	5.6	4.6	3.4	2.4	0.9	3.8	328.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 수산식품 중 김의 수출액(2024년 상반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한 5억 3,520만 달러였고, 참치는 7.4% 증가한 2억 9,22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 성장세를 보임.

- 김 수출은 2023년 최초로 7.7억 달러(1조 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4년에는 수출이 더 증가한 양상을 보임. 한국산 김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며, 2023년부터 러시아 및 태국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참치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전반적 수요 감소 및 어획 부진으로 인해 2023년 5억 6,31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한 수출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함. 이는 수출국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와 더불어 중국 및 유럽 지역에서의 수출 급증이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사료됨.

Ⅱ 2024년 상반기 수산식품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A)	2024년 상반기 (B)	증감률 (B/A)
김	600.4	692.9	647.6	792.5	405.4	535.2	32.0%
미국	138.0	155.5	148.4	169.5	83.3	106.0	27.3%
일본	100.9	139.4	96.3	97.1	66.3	95.0	43.3%
태국	42.2	43.4	44.4	66.4	43.4	72.7	67.5%
러시아	42.2	43.4	44.4	66.4	26.0	49.9	91.9%
중국	100.9	139.4	96.3	97.1	63.5	45.7	-28.0%
참치	528.0	579.2	602.3	563.1	272.1	292.2	7.4%
일본	178.2	208.0	195.1	150.1	76.3	78.3	2.6%
태국	104.7	64.9	96.6	150.9	60.9	61.1	0.3%
중국	40.0	28.6	31.8	54.5	36.5	47.2	29.3%
프랑스	30.5	53.6	60.2	41.5	22.5	27.7	23.1%
이탈리아	30.4	46.6	43.5	30.7	16.7	21.2	26.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aT KATI).

농림수산식품 수출정책 동향

● 2024년 2월,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푸드 플러스(K-Food+)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

- K-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 2027년까지 K-푸드 플러스를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제시하고, 5가지 유형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함.

· K-푸드는 2023년 기준 ①반도체, ②자동차, ③일반기계, ④석유제품, ⑤석유화학, ⑥철강 제품, ⑦자동차부품, ⑧선박, ⑨디스플레이, ⑩무선통신기기, ⑪바이오헬스에 이어 12대 수출산업임.

Ⅲ K-푸드 플러스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목표	① 2024년 K-Food 수출 목표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 달성 - (2024년 기준) 농식품 100억 달러, 전후방산업 35억 달러 ② 3대 신시장(중동·중남미·인도) 수출비중 확대 - (2023년) 6.2% → (2024년) 8% → (2027년) 12% ③ 유망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억 달러 이상 수출기업·품목 확대: (2023년) 21개 → (2024년) 27개
추진 계획	① 수출 구조·체질 개선 - 수출통합조직 자생력 제고 위주 지원체계 개편 - 콜드체인, CA 등 신선물류 인프라 구축, 물류 공동 협의로 비용 절감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통상환경 대응체계 마련, R&D 수출보험 확대, 지역농업 기반 식품 제조·수출 브랜드 육성 ② K-Food+ 수출영토 확장 -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개척 및 할랄 진출 확대 - 기존 수출시장 내실화 - 검역해소 유망품목 수출 지원, 우선 수출 검역협상 로드맵 마련 ③ 한류 마케팅, 온라인 수출 활성화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한류 기반 마케팅 확대 - K-Food 로고, 안테나숍 설치 등 확대 - 글로벌 B2B 플랫폼 연계 및 온라인 수출 활성화 ④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 발굴/추진 - 100대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투자 지원 등 민간 투자 활성화 ⑤ 전후방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중동 등 유망국가 거점화, G2G 협력 강화 - 농기자재: 북미→유럽 등으로 시장 다변화 - 동물약품: 수출용 GMP 신설 및 금융지원 확대 - 펫푸드: 초기 시장 개척 집중

자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2.20.)

● 2024년 상반기 기준,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62억 1,190만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함.

- 그중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47억 6,640만 달러로 전년 동기(44억 6,830만 달러) 대비 6.7%가량 증가하였으며, 전후방산업 또한 14억 4,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14억 3,730만 달러) 대비 0.6% 증가함.

- 농식품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의 수출 상위 품목은 펫푸드(7,980만 달러), 동물용의약품(1억 1,080만 달러), 농약(4,11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부처간 협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신선농산물 물류 개선을 위한 김해공항 신규 화물전용 항공사 안전운항 준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부산항 터미널 임시보관소 공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남미·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 협력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하기로 함.

- 대기업 유통 인프라를 통해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사례를 발굴함(GS리테일-봉땅).

주요국의 농림수산식품 시장트렌드 및 전망

● 주요 농식품 수출 대상국(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유럽(영국 포함)의 식품산업 이슈와 주요 규제 현황을 둘러보고, 2024년 시장 트렌드를 정리함.

- 대상 국가 대부분은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식품물가 상승 여파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로 전환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 웰니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저염·저당식품과 기능성식품에 관한 수요가 증대함.

- 환경 및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물성 대체식품 및 친환경 포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Ⅳ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시장 이슈 및 트렌드

미국	이슈	- 냉동김밥, 콘도그 등 K-Food 인기 - 식품 구매 시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 이용 증가 - 비알코올(Non-alcohol) 음료 주류 시장 성장
	주요 규제	- 참깨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2023년 1월~) - 캘리포니아주, 2027년부터 4개 식품첨가물(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적색색소 3호) 사용 금지
	전망	- 식품물가 상승 여파로 가격 중시 소비행태 증가 - 가심비 선호 트렌드 확산: 작은 사치를 통한 심리적 만족 획득 - 건강과 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른 대체육 관심 증가 - 드론배송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리테일테크 수요 증가
일본	이슈	- 식물성 단백질 활용, 대체수산식품 개발 및 출시 확대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저알코올, 비알코올 음료 수요 증가 - 젤리류 제품 인기 및 한국 디저트 유행의 일본 전역 확산
	주요 규제	- 호두(くるみ)의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 지정(2023년 3월~)
	전망	- 식품물가 상승에 따른 가성비 중시 및 절약지향 소비 트렌드 확산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저염 및 저당질 식품시장 성장 -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애그리테크 기술 상용화, 대체육·식물성 유제품 등 신식품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중국	이슈	- 비대면 식품구매 일상화 등에 따른 즉시배송 서비스 확대 -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식물성 우유 인기 -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신중·이성적 소비 트렌드 정착
	주요 규제	- 식품 오염물질 표준 개정안 시행(2023년 6월~)으로 중금속 및 유해물질 기준치에 유의 - 신선식품 과대포장 제한(2024년 4월~) - 영유아용 조제분유, 배합 등록 조치 개정안 시행
	전망	- 인구사회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간편성, 고품질을 충족하는 편의식품 시장 성장 - 지속가능한 식품 포장에 대한 인식 향상 - 건강에 대한 관심 지속으로 맞춤형 기능성식품 수요 증가
아세안	이슈	- K-콘텐츠 인기로 따른 약과, 전통간식류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 - Tiktok숍, 아세안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온라인 유통채널로 부상 - 건강, 웰니스 관심 증대와 함께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증가
	주요 규제	- 필리핀: 트랜스지방 함량 규제 실시 - 싱가포르: 즉석제조음료에 영양등급제도(Nutri Grade) 적용 - 태국: 가당음료에 3단계 설탕세 부과(~2025년 3월 31일) - 인나: 모든 수입식품·음료에 할랄인증 표시 의무화(2024년 10월~)
	전망	- 규제 강화 및 건강트렌드에 따른 저당·저염식품 관심 증대 - 콜드체인 유통 성장에 따른 냉동식품 시장 확대 - 대체단백질 등 신식품 연구개발 확대 전망
유럽	이슈	- 물가급등에 따른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중량 감소) 이슈 부상 - 건강, 동물복지, 환경문제 등 관심 확대로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 일회용 식기류 사용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패키징 도입 확대
	주요 규제	- 한국산 즉석면류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2023년 7월~) - 산림을 전용하여 생산한 제품, 수입 및 판매 제한(2024년 말) - 영국: 고지방·고당류·고염분 식품의 광고, 홍보 제한
	전망	- 유럽 내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아시아 식품 인지도 증대, 이에 따라 한국 소스·장류 수출 증대 기대 - 밀키트 시장 성장 가속화, 향후 친환경포장 등 지속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부상 - 식품폐기물의 사회적 문제 대두로 식품 폐기물 감축방안 모색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글로벌 농식품 시장트렌드 및 전망.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전략 및 과제

- 기존 제품의 기술개발 및 적용을 통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함.
 - 김의 눅눅함과 짧은 유통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속 동결 및 수분제어 기술을 도입한 냉동 김밥 제품을 개발한 사례와 같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간편성과 건강지향 편의식품 수요 증가 등 수출 대상국의 식품시장 트렌드를 고려한 수출 품목 선정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SNS 인플루언서가 언급하는 식품 유형 및 품목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임.

- 복합문화와 함께 수출패키지 전략 개발이 필요함.
 - 프랑스의 경우, 와인 문화 보급을 위해 각국에 소믈리에를 육성하고, 소믈리에를 통한 와인 판매로 와인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소스, 식재료, 음식과 어울리는 음료, 조리도구, 식기 등 한식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함.
 - K-Food와 연계한 전후방산업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등 수출 유망국가에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및 중점지원무역을 지정하는 등 거점화를 추진 중임.
 - 식품 로봇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식품 로봇의 해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식품로봇 분야)를 통한 식품 로봇의 NSF 인증을 위한 기술 실증 등이 필요함.
- 각국의 비관세장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특정 이슈 발생 시 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비관세장벽(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 또는 FTA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임.
 - 최근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로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기술장벽(TBT)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기후변화, 인권문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한 가운데, 식품기업의 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공급망실사법의 입법이 진행되며 ESG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사 선정 시 특정 ESG 이니셔티브(각 산업 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ESG 행동 강령 또는 지침의 형태로 자율적 규범을 준수하는 협의체 또는 조직) 준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미국 식품업계에서도 ‘저탄소’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 중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 기후관련금융위험법을 입법하였으며, 주요 육가공업체(타이슨푸드, 스미스필드푸드 등)에서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 브랜드 론칭하기도 하였음. 최근에는 탄소 배출 정보를 수치화해 공개하는 탄소 라벨링 등을 준비 중임.
 - EU에서는 최종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의 재활용 내용물에 관한 규칙을 담은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을 제정하였음. 이와 같이 유럽 친환경 포장재 규정 준수 및 인증제도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저자 정보

- 박미성 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
- 김성휘 위촉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